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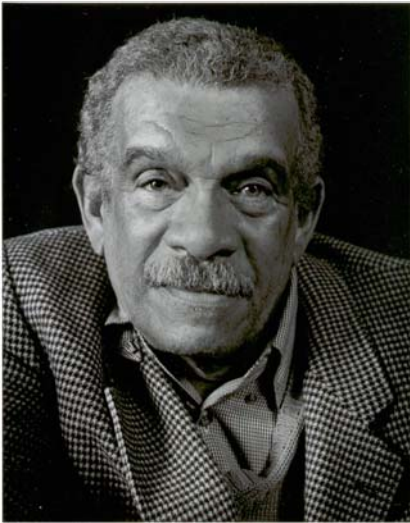
■ 카리브 해 영어권 탈식민문학론

이 미 애

나는 그저 바다를 사랑하는 붉은 검둥이,
 건전한 식민 교육을 받았지,
 내 속에는 네덜란드인, 검둥이, 영국인이 섞여 있지,
 나는 아무 것도 아니거나 혹은 하나의 국가.
 - 데릭 월콧, 「범선 여행」

카리브 지역의 역사적 굴레: 혼종의 정체성

위에 인용한 시에서 월콧은 카리브인에게 주어진 존재상황을 단적으로 암시한다. 그는 부계 쪽의 조부가 영국인이고 모계 쪽의 조부가 네덜란드인이며 양쪽 조모는 모두 흑인인 자신의 혈통을 생각하며 과연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여러 인종의 피가 뒤섞여 흐르고 있는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이거나 아니면 여러 혈통을 아우르며 형성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지난한



데릭 월콧

몸부림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수백 년에 걸친 식민 지배를 받으며 소수의 백인과 다수의 흑인 노예, 중동 지역의 상인, 아시아계 노동 인구의 유입 등으로 형성되어 온 카리브 지역은 일정한 정체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서인도 제도에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카리브 지역의 문학 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물음이며 또한 카리브 지역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현실을 관통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다.

월콧이 고심하는 혼종의 정체성 혹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문제는 카리브 지역의 다른 작가들에게도 절박한 화두다. 트리니다드 출신의 C. L. R. 제임스(James)와 V. S. 나이폴(Naipaul), 바베이도스 출신의 조지 래밍(George Lamming)과 에드워드 카마우 브래스웨이트(Edward Kamau Brathwaite), 도미니카 출신의 진 리스(Jean Rhys), 가이아나 출신의 윌슨 해리스(Wilson Harris), 세인트루시아 출신의 데릭 월콧(Derek Walcott), 안티구아 출신의 자메이카 킨케이드(Jamaica Kincaid), 자메이카 출신의 미셸 클리프(Michelle Cliff), 바베이도스 출신의 이민 2세 폴 마샬(Paule Marshall), 세인트키츠 출신의 커릴 필립스(Caryl Phillips) 등 영어권의 대표적 작가들에게 가장 첨예한 문제가 바로 개인적·문화적·국가적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체성 문제는 카리브 지역 특유의 역사에서 빚어진 유산이다. 오랜 식민화의 역사로 인해 과거의 문화 전통이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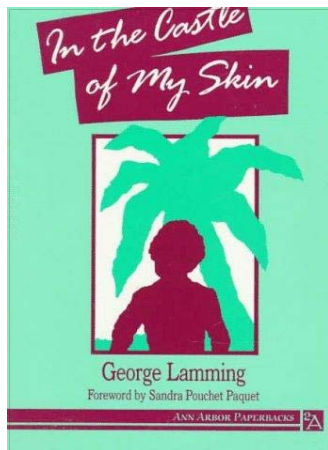
되었거나 소실되었고, 다양한 인종이 혼혈관계로 뒤섞이면서 뿌리 없는 불안정함이 카리브 인의 심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노예 해방 이후에도 인종 간의 갈등, 대농장 소유주와 소규모의 자영농, 신흥 부자와 몰락한 귀족, 백인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몰라토와 빈민 계층 등 다양한 계급 간의 갈등 및 국가 간의 반목이 있었다. 집단 이주, 노예화의 경험, 추방 또는 ‘자발적’ 노역 계약으로 인한 노동력 유입 등으로 확고한 자아 개념이나 소속감이 희박해졌으며, 보다 우월한 인종적·문화적 세력이 토착적 문화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억압함으로써 자아 개념은 더욱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카리브 지역 특유의 정체성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들은 정전화된 역사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역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의미를 반추하고자 한다. 식민화의 경험은 피지배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식민화가 식민지의 역사·경제·문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식민 교육과 언어는 피지배자의 의식과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서구의 과학·기술·종교는 기존의 지식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식민주의자들이 떠난 이후 등장한 정체성은 어떠한 것일까? 식민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식민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성·인종·계급은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가 이전의 식민주의를 대치하고 있을까? 작가들이 당면한 이들 문제는 바로 탈식민주의 담론의 핵심적인 물음이다.

1992년과 2001년 각각 노벨상을 수상한 데릭 월컷과 나이폴 등 탁월한 작가들의 위상과 업적으로 인해 근래에 이르러 카리브 문학은 단순히 변두리 문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 탐색과 증언의 장이 되었다. 과거에는 아

프리카와 인도, 호주, 캐나다 등을 포함한 영연방 문학의 일부분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현대의 탈식민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핵심적인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리브 문학은 탈식민주의 문학논의의 사례를 예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 논의의 핵심적인 쟁점은 물론 혼종의 정체성이다.

탈식민지의 역습: 되받아 쓰기



『내 피부의 성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카리브 지역의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작가들은 독자적인 카리브 의식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조지 래밍의 『내 피부의 성에서』 (*In the Castle of My Skin*, 1953), 나이폴의 『비스워스씨의 집』 (*A House for Mr. Biswas*, 1961), 월슨 해리스의 『공작새 궁전』 (*Palace of the Peacock*, 1960), 진 리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 (*Wide Sargasso Sea*, 1966), 이 밖에 크리켓과 카리브 민족주의의 문제를 논한 C. L. R. 제임스의 책 『경계를 넘어』 (*Beyond a Boundary*, 196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초기 문학적 성과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이 영국의 문학적·역사적·정치적 담론과 대화적 관계를 바탕으로 카리브 지역의 정체성을 밝혀 보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담론의 권위에 조심스럽게 도전하면서 변증법적 대화를 시도할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의 정전에 속하는 이야기들을 과감하게 ‘다시 쓰고’ 다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



『드넓은 사가소 바다』

해 왔다.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등장하는 캘리번(Caliban)은 카리브 지역의 영웅으로, 또 프로스페로(Prospero)는 식민주의자이자 악당으로 재해석되었다. 윌슨 해리스의 『공작새 궁전』은 적지 않은 부분을 조셉 콘라드의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에 의존하고 있지만 카리브 지역의 대립적 요소를 혼합하려는 독자적 실험이다. 진 리스는 「그들이 책을 불태운 날」(The Day They Burned the Books)과 같

은 단편소설에서 빅토리아 시대의 정전 텍스트와 카리브 지역의 국가적 정체성 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제시한다. 이처럼 많은 작가들이 영국의 정전을 탐색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카리브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정전 또는 영국적 기준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음을 시사한다.

영국 정전에 대해 가장 통렬한 반격을 가한 작품으로서 진 리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를 들 수 있다.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Jane Eyre)를 카리브 여성의 관점에서 되받아 쓴 작품이자 페미니즘 비평의 상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소설은, 영국 정전에 형상화된 카리브 인의 이미지와 빅토리아 시대의 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진 리스는 백인 크레올 여성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원주민’이나 ‘야만성’ 등 유럽식 통념을 전도할 뿐 아니라, 대립적인 문화, 인종, 계급, 국가 등 카리브 지역의 핵심적인 문제가 카리브 인의 정체성 문제에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자아와 타자의 대립, 식민지와 식민지 종주국 간의 불평등한 관계, 제국주의적·가부장적 억압, 계층적·인종적 갈등과 단절, 광기와 관습적 이성, 실체와 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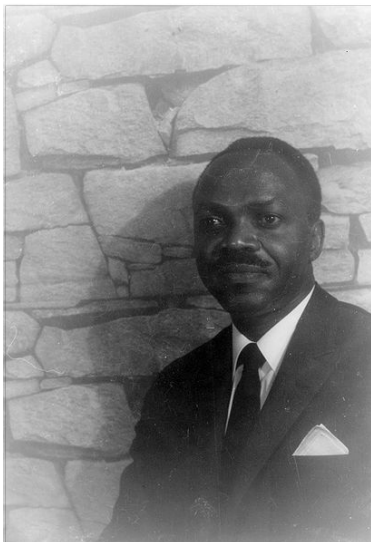
대립 등 이 소설을 둘러싼 복합적인 의미망은 카리브 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결코 간단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영국 정전을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모방을 통한 전복과 저항이라는 탈식민주의적 문학 담론 전략을 예시한다. 즉 식민지의 시각에서 서구의 정전과 공적 역사, 주도권의 중심을 해체하고 역사를 수정하고 재해석하며 기존의 역사에서 침묵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강요당했던 의식을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으로 문화 전통을 세우려는 시도다. 월슨 해리스, 나이폴, 조지 래밍, 진 리스 등 카리브 작가들은 영국 정전에 속한 작품을 되받아 다시 쓰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기존의 계급 질서를 전복할 뿐 아니라 그 질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철학적 가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리얼리티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제국의 문화적 사업에서 문학이 중심적인 영역이었던 만큼, 리스의 『드넓은 사가소 바다』와 같은 주변적 요소가 중심의 배타적 주장을 위협할 때 그것은 재빨리 그 중심에 흡수되어 버린다. 리스와 나이폴, 월콧 등의 작가들이 영국이나 미국의 정전에 포함되어 제국의 문화적 유산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것이 파생 관계를 가장하면서 의식적으로는 친족 관계를 확인하려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채택되고 흡수되기를 바라며 중심을 모방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주변부의 시각에서 제국의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 정전을 탈중심화하려는 작품들이 곧바로 제국의 주류 문학에 흡수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은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로 글을 쓰는 과거 영국 식민지 출신의 작가들에게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전 세계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의 탓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탈식민주의라는 문화 상품을 제조하여 제3 세계에 다시 수출하는 고도의 문화적 마케팅의 결과로 간주하든지 간에,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중심부가 주변부를 흡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유한 정체성의 모색: 월콧과 브래스웨이트



에드워드 브래스웨이트

이처럼 영국의 정전을 염두에 두고 영어권 독자들을 상대로 글을 쓰는 작가들과 달리 토속적인 언어로 고유한 경험을 형상화하려는 작가들의 움직임은 카리브 문학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케냐의 유명한 작가 응구기가 영어로 작품을 쓰기를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언어인 기쿠유어로 창작해 온 것과 유사하게 서인도 제도의 작가들도 다중의 유산 가운데 자신이 소속된 인종적 집단의 과거 역사에서 진정한 전통과 문화의 원천을 추구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들 작가는 때로 원래의 고향인 아프리카, 인도 등으로 회귀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서 “민족 언어”(nation language)를 사용할 것을 주창한 시인이자 역사가 에드워드 브래스웨이트를 들 수 있다. 그는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전통 시와 신화를 연구했고 민담과 노래 등에서 종족의 뿌리와 복합적 유산을 찾으려 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민족 언어”란 “지금의 공

식 영어가 아니라 서인도 제도에 끌려 온 사람들이 쓴 영어, 노예와 노동자와 하인의 언어” 다. 그의 시집 『통과의례』 (Rites of Passage, 1973)는 사슬에 묶인 아프리카 노예의 강제 이주에서부터 사탕수수 농장을 거쳐 북미의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흑인의 지난한 역사적 여정을 그려 내며 그들의 경험에 목소리를 부여한다. 브래스웨이트와 초기의 데릭 월콧, 그 밖의 다른 시인들이 주축이 되었던 이러한 흑인 민족주의 운동은 카리브 지역의 다수를 형성하는 흑인의 귀속감과 자의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데릭 월콧은 서인도 제도가 물려받은 다양한 전통과 영혼의 파편으로부터 혼종적 영혼을 창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아프리카의 문화적 전통을 추구한 브래스웨이트와 다르다. 『오메로스』에서 월콧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서사적 틀로 삼고 그 주인공을 세인트루시아의 어부로 설정하여 그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려 내며 그 섬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방대한 서사시를 창조한다. 이 시의 화자는 여러 여정을 기술하면서 다양한 식민지 역사의 숨겨진 부분들을 찾아내고 크레올 문화의 풍부한 전통을 창조적으로 이용하여 식민지 유산의 짐과 카리브 인의 파편화된 정체성을 밝혀낸다. 나이폴과 달리 월콧은 카리브 지역의 크레올화한 시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확실한 정체성을 찬양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서구의 고전문학을 암시하고 오든과 엘리엇 같은 현대 시인의 전통과 자신을 관련시킴으로써 유럽과 미국 시의 주류에 속할 수 있었다. 그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도 이처럼 서구의 중심부와 주변부 양쪽에 귀속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브래스웨이트는 서구의 고급문화 전통에 저항하는 시어를 발전시켰으며 지역적 뿌리, 특히 아프리카의 문화적 유산

을 바탕으로 카리브 흑인의 역사를 재창조하려고 시도했다. 서부 아프리카의 노래, 미국 흑인의 영가와 재즈, 카리브 해의 크레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흑인 문화 전통을 포함하는 ‘민족 언어’는 표준 영어로 쓰인 형식적 시를 파고들어 그 사슬을 끊는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제임스 베리에 의하면, 브래스웨이트의 시는 ‘방언’의 감옥으로부터 민중의 언어를 해방시켰다. 그의 창조적 언어 실험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변형하여 재구성했으며 그 결과 흑인 디아스포라는 제국주의와 그 이후의 국제적 자본주의에 의해 분열된 세계에 내재된 정신적 총체성의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었다. 아마도 카리브 디아스포라의 가장 혁신적인 시인으로서 브래스웨이트는 역사의 음모를 넘어서는 의미와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유대와 통합의 비전: 윌슨 해리스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전통과 문화의 선택에 있어서 또 다른 대안은 아예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가장 도전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독보적인 작가는 윌슨 해리스다. 그의 신념에 따르면 가이아나 인이 자신들의 진정한 역사적 과거와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또는 유럽이 아니라 바로 그곳, 카리브 지역이다. 난해하기로 유명한 그의 소설 『공작새 궁전』은 일단의 남자들이 신비로운 마리엘라를 찾아 강을 따라가는 여행을 그리며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 심지어 정복자와 피정복자 간의 장벽을 허물어뜨린다. 그들의 여행과 죽음은 오랫동안 인간을 분열시켰던 경계를 지우고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정신적 유대를 궁극적으로 발

견하려는 작가의 지향점을 보여 준다. 궁극적으로 해리스는 흑인과 백인, 식민주의자와 피식민자, 심지어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경계가 무너진 지점에서, 풍부한 혼종성에 입각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카리브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적 비전은 『공작새 궁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카리브의 『암흑의 핵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작품에서 해리스는 단어와 개념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그 바닥에 있는 통합적 뿌리를 찾으려고 시도한다. 해리스는 선원들을 분열시켰던 이분법적 대립이 실은 피상적인 차이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그의 은유적 탐색을 확대하여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이분법적 대립을 잠식한다. 이를 위해서 해리스는 생명의 신화적 기원과 가이아나 풍경의 연속성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며, 이 과정에서 역사의 유산인 식민주의자와 피지배자 간의 권력 관계는 해체된다. 그는 탈식민주의 작가들 가운데 가장 파격적으로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하고, 언어, 인간관계, 심지어 역사적 유산을 해체하며, 삶과 죽음 그리고 다른 대립항을 새롭게 결합하고 뒤섞음으로써 독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관습적인 가설을 돌아보도록 한다. 『공작새 궁전』에서 강을 따라가는 여행은 단순히 오지를 정복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과거로의 여행, 삶의 기원으로의 여행이다. 그런 전망에서 바라볼 때 현재의 인종적·문화적·국가적 정체성의 차이란 사소하기 그지없다. 궁극적인 자기 발견의 구조를 통해 신비로운 유대의 경험을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스는 현대의 작가들 가운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탈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 정체성

카리브 지역의 혼종적 정체성은 곧 이주와 노예화의 경험, 강제 이송, 또는 노동력으로서의 자발적인 이민 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맞물린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다. 식민주의자들은 토착적인 문화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억압함으로써 토착민이나 이주민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유발해 왔다. 현대 카리브 지역에서 성장소설 또는 교양소설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정체성의 위기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성장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은 영국의 식민 교육이 식민지 아동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특히 주목한다는 점이다. 식민 교육의 결과, 아동은 두 문화의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하고 자신에게 친숙한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타자’로 여긴다. 서인도 제도의 구성원이지만 그 문화의 귀속력은 미약하며, 다른 편으로는 유럽 중심적인 교육제도에 의해 길들여지지만 그것에 동화될 수도 없다. 더 나아가 식민 교육은 서인도 제도 아동에게 이질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열등감을 조장하고 자기혐오 및 무력감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피지배자로서의 굴욕감을 강화한다. 서인도 제도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열등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당하며, 그로 인한 분노와 굴욕감으로 비틀리게 된다. 이들 소설이 대체로 다른 곳을 향한 여행으로 끝을 맺는 것은 정체성의 분열 또는 부재로 고통 받는 피지배자가 자기를 발견하고 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카리브 인이 카리브 지역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활발해졌고, 그것은 국가적 경계를 넘나드는 개인적·집단적 이주가 자행되는 전 세계적 현상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우리 시대에 들어서 “언제나 이동 중”인 세력이 형성되고 “여행 도중의 거주”가 점점 보편화되는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호미 바바는 디아스포라적 이동 그 자체가 “탈식민주의의 공간”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탈식민적·초국가적 경험을 담은 디아스포라의 서사야말로 문화들이 타자성을 투사함으로써 스스로를 인지하는 “세계 문학”의 장이라고 상정한다.

그러나 정체성이 역사와 문화, 공간에 자리 잡은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면, 카리브 출신 작가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될까? 미국이라는 신세계는 과연 다양한 문화적 지류가 만나는 접합점이며, 디아스포라의 집결지이고, 다양한 문화 간의 서로 다른 경험이 인정되는 세계 문학의 장이 될까? 국가, 인종, 지역을 넘나드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코스모폴리탄은 특수하고 고유한 지역성을 대치하는 개념이 될까? 이들 물음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흐름을 향한 열려 있는 물음이기에 그 답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카리브 지역 작가들이 당면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문제는 전 세계적 흐름을 예시하는 것이기에 더욱 관심을 끈다.

이미애 - 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원
